

<요 약>

I. 서

1. 문제의 제기

- 1960년대 경제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금융부문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실물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하위 정책 수단으로 운영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정부는 자원 배분의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왔음.
- 따라서 금융산업은 자본주의 경제 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시장기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고, 국가경제의 여러 부문 중에서 가장 낙후된 산업으로 전락하게 되었으나,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에 따른 금융서비스시장의 개방과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가입에 따른 자본시장의 개방은 국내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 이러한 금융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며 금융산업의 구조 조정 및 시장기능 확립을 위하여 금융개혁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금융개혁안이 제시될 예정이므로 금융산업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경제 성장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담당하는 건설업의 경우, 무엇보다도 금융경쟁력의 증대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건설금융정책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정책과제로 부상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금융개방 및 금융개혁의 일정에 따른 국내 금융환경의 변화를 전망하고, 이것이 건설업과 건설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규모별, 시장별로 분석하고자 함.
- 또한, 금융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며 운영되어야 할 건설금융제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건설업의 금융경쟁력 증대를 위하여 개선되고 활성화되어야 하는 건설금융제도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2. 금융환경의 대내외적 변화

- 1980년대 후반부터 추진된 개방화 추세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으로 본격화되었고, 1995년 1월부터 발효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동년 7월의 후속 협상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으로 국내 금융관련 시장이 1997년부터 점진적으로 개방될 예정임.

- OECD의 자유화 규약은 WTO 협정보다 포괄하는 범위가 훨씬 넓고, 자유화 의무의 정도 또한 매우 높아서 우리 나라 경제 전반 및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 대통령의 직속기구로 설치된 금융개혁위원회는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금융개혁안을 제시할 예정임.
- 금융개혁은 기본적으로 금융개혁위원회가 설정한 5개 목표, 즉 금융의 공공성 제고, 효율적 금융시장 형성, 이용자 중심의 시장기능 활성화,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그리고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임.
-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이 제시한 금융개혁안의 내용을 비교하면, 재정경제원은 금융산업의 구조 조정에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인 실행 방식을 제시한 반면, 한국은행은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및 통화정책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시장경쟁의 원리를 강조한 것이 큰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음.

3. 향후 금융환경의 전망

- 최근 개방화 추세에 따라 진전된 금융개방과 금융개혁으로 인해 국내 금융산업의 환경 변화는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금융산업 및 자본시장의 체계에 큰 수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됨.
- 금융기관이 자율성을 회복하고 경쟁력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치금융에서 탈피하여야 하고 금융기관 사이의 업역 제한이 폐지되며 자유로운 신규 진입이 허용되어 시장원리에 의한 자유 경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예상됨.
- 관치금융으로 보호받으며 성장한 금융산업은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형태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공급자 혹은 금융기관 중심의 금융(Suppliers' Finance)에서 수요자 또는 이용자 중심의 금융(Demanders' Finance)으로 전환될 것임.
- 향후 금융기관간의 경쟁 심화로 인해 금융기관은 자금의 순환이 양호하고 높은 수익성이 예상되는 우수 기업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배분할 것이므로, 규모가 영세하고 자본이 열악하며 경영 실적이 저조한 기업은 금융개방이나 금융개혁 이전에 비하여 자금의 조달이나 운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II. 건설금융에 대한 금융환경 변화의 파급효과 분석

1. 건설금융의 현황 및 특성

(1) 건설업의 자금 운용 현황

- 1996년 건설업의 자금운용 규모는 14조 3,905억원으로 전산업의 총운용자금 121조 5,665억원의 11.8%에 해당하며, 이는 당해 년도 건설업의 총매출액 100조 6,881억원의 14.3%에 이르는 수준임.
- 또한, 건설업의 자금 운용 및 원천 구조가 제조업의 구조나 전산업의 평균 구조와는 매우 상이한데, 자금의 운용 측면에서 건설업의 고정자산 비중이 낮은 반면, 기타로 운용된 자금의 비중은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음.
- 자금의 원천 측면에 있어서도 자기자금 비중은 현저하게 낮은 반면, 타인자금의 비중은 현저하게 높으며, 특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기간별 차입금 중에서 장기차입금의 비중은 다소 낮은 반면, 단기차입금은 현저하게 높게 나타남.

(2) 건설업의 자산 및 부채자본 구조 현황

- 1996년 건설업의 자산 규모는 전년대비 11.3%가 증가한 106조 6,330억원으로 전산업의 자산액 713조 1,019억원의 15.0%를 점유한 반면, 제조업의 자산 규모는 407조 5,317억원에 달해 전산업 자산액의 57.1%에 이르러 건설업 자산액의 3.8배에 이르고 있음.
- 건설업은 유동자산의 비중이 현저하게 높은 반면, 고정자산의 비중은 현저하게 낮아 건설업의 경영 활동이 여타 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음.
- 각 산업별 부채 및 자본구조의 비교를 통하여, 건설업은 자본의 비중이 적고, 당좌자산을 비롯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비중이 현저하게 큰 반면, 유형고정자산과 고정부채의 비중이 현저하게 적은 산업임을 알 수 있음.

(3) 건설업의 자금 조달 현황

- 건설업의 자금 조달 형태는 주식 또는 회사채 발행을 통한 직접금융이 있고, 간접금융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과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이 있으며,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및 융자 등이 있음.

(4) 건설금융의 특성

- 제조업을 비롯한 여타 산업에 대비한 건설금융의 특성을 자금의 조달 및 운용의 측면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의 특성을 지적할 수 있음.
- 첫째, 자금의 운용에 있어서 고정자산, 특히 유형고정자산의 비중이 현저히 낮고, 둘째 자금의 원천에 있어서 타인의 자금, 특히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의존도가 현저히 높음.
- 셋째, 자본 및 부채의 구조에 있어서 부채의 비중, 특히 당좌부채 등 단기성 유동부채의 비중이 현저히 높고, 넷째 금융환경은 금융비용 측면에서 타산업에 비해 열악한 편임.
- 다섯째,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은 1년 이상의 장기성 시설자금을 위한 대출금 비중이 현저히 낮아 자금 조달 또한 단기성 운영자금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마지막으로 대출실적은 예금은행보다는 비통화금융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현저하게 높음.

2. 금융환경 변화의 파급효과

(1) 전반적인 파급효과

- 금융개방과 금융개혁에 따른 금융환경의 변화가 건설업 및 건설기업에 미치는 전반적인 파급효과로서 다음 세 가지가 예상되는데, 첫째 자원 배분의 산업간 형평성이 지속적으로 회복될 것이므로 건설기업의 금융환경이 향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둘째, 금융개방에 따른 금융 자유화와 금융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향후 건설기업은 국내외의 다양한 자금원을 저리(低利)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셋째 지금까지 기업의 금융경쟁력 제고에 큰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지목되었던 여러 가지 금융관행들이 수요자 및 기업 중심으로 개선되어 건설기업의 자금 동원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 지금까지 관치금융으로 운용되어 온 국내 금융산업이 건설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된 점을 감안할 때, 금융환경 변화가 건설기업에 미치는 전반적인 파급효과는 기존에 상대적으로 우대 정책의 혜택을 받아 온 다른 산업에 비하여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2) 기업규모별 파급효과 : 대형 건설기업 vs. 중소 건설기업

- 대기업의 경우 단기 자금의 조달은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장기 자금의 조달은 직접금융의 방식을 취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장·단기 자금의 조달에 있어서 제도권 금융기관 및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대출금을 기준하여 상위 5대 및 10대 계열기업군에 소속된 기업에 적용되던 은행법 상의 「동일인 여신한도제」가 「동일계열 여신한도제」로 전환될 전망이어서 대기업군에 속한 건설기업은 자사의 여신한도를 동일계열의 기업군에 속하는 다른 기업의 여신한도와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기업군 내에서의 여러 가지 투자활동 중 우선 순위에 따라 자사의 여신한도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여신한도관리제도」의 폐지와 더불어 「주거래은행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다수의 은행과 금융거래가 있는 대형 건설기업은 기존보다 다양한 형태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건설활동의 기본적인 생산요소인 부동산을 용이하게 취득하여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투자계획의 설정 및 집행 또한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됨.
- 해외금융의 이용과 관련된 규제가 향후 지속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므로 기존에는 해외금융을 이용할 수 없었던 중견 건설기업이나 중소 건설기업 또한 다양한 형태의 해외금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향후 건설기업의 상업차관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기획개발형 사업이 대형 건설기업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될 수 있을 것이고, 국내·외의 다양한 자금원에 대한 건설기업의 접근도는 기업규모에 따라 증대될 것이며, 특히 대내외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대형 건설기업의 금융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중소기업의 외화대출 용자대상 및 용자한도 확대, 비은행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전용 외화차입 허용, 중소기업이 발행한 보증채 등 유가증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 조기 허용 등 중소 건설기업의 해외금융 이용도 또한 증가하여 투자규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수요창출형 개발사업에 중소 건설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중소기업의 지원 및 육성 차원에서 실시되는 금융 및 세제 지원이 국제적 규범 및 관행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현재 중소기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 정책은 향후 지속적으로 완화될 것이므로 중소기업은 점차 그 보호막을 상실하게 되고, 중소 건설기업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3) 시장별 파급효과 : 국내 건설기업 vs. 해외 건설기업

- 해외 건설기업은 금융환경의 변화가 국내 건설기업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와 더불어 해외금융 이용에 관한 규제 완화로 인해 해외에서 기획개발형 건설 프로젝트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해외 건설기업의 자금 조달 및 운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으로서 해외직접투자자시 자기자금 조달의무 및 현지금융에 대한 모기업의 자기자금 지원의무에 관한 규제 완화 사항을 들 수 있음.
- 특히, 이는 해외 건설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크게 감소시킬 것이므로 국내의 해외 건설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대규모의 기획개발형 해외건설 프로젝트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

III. 건설금융제도의 개선방안

1. 건설금융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

- 건설금융제도에 대한 정부의 정책 기조 및 정책 운영의 기본 방향은 건설업 및 건설활동이 갖는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기업의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산업간의 차별 정책이 철저하게 배제되고, 자원의 배분 또한 산업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되 해당 산업의 국민경제적 기여도 및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기준하여 각 산업별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건설금융환경의 개선방안

(1) 건설기업에 대한 여신관리 및 신용평가제도의 개선

- 금융기관의 여신에 관한 건설기업의 신용평가에 있어서 건설업의 산업구조적 특성이 고려된 별도의 신용평가기준에 의한 여신관리체제가 도입되어, 산업간 형평성을 회복하고 산업간 경쟁력을 도모하여야 함.

(2) 건설업에 차별 적용되는 금융관행의 개선

- 첫째, 산업간 자금 지원에 있어서 형평성을 회복하고, 산업간 자원 배분의 효율화를 통하여 산업간 경쟁의 증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의 상업어음 재할인 비율은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각각 50%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시장기능에 일임하여야 할 것임.
- 둘째, 중소기업과 30억원 이하의 소액 회사채 발행은 업종에 관계없이 발행 물량의 조정을 받고 있지 않으나 제조업의 경우는 30억원 이상의 회사채 발행도 기채조정의 적용 특례로 인해 물량조정의 대상이 아닌 반면, 건설업을 포함한 비제조업은 물량조정의 대상으로서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건설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물량도 자율화되어야 함.

3. 건설금융의 활성화방안

(1) 건설공제조합의 업무 영역 조정

- 첫째, 대형 건설기업은 주식 및 회사채의 발행 등을 통하여 자금 조달이 다소 용이한 반면,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한 대부분의 중소규모 건설기업들을 대신하여 건설공제조합이 자체의 신용을 배경으로 조합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지원하도록 허용하여 중소규모 건설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폭을 확대하여야 함.
- 둘째, 건설관련 공제조합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보험 업무를 허용하여 향후 활성화될 공사보험에 대한 조합원의 보험료를 절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2) 선금급제도의 개선 및 실질적 운영

- 공공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의무적 선금지급률에 따라 선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은 선금지급 실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등 의무적 선금지급률의 성실 이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절대적으로 요구됨.

IV. 향후 과제

- 본 연구는 금융개방과 금융개혁에 따른 금융산업의 환경 변화에 부응하며,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건설금융제도의 기본 방향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향후 추진할 연구분야로는 조세정책 및 제도에 대한 연구와 규모별·업종별·시장별로 각각의 건설활동에 따라 특징을 갖는 개별 건설기업에 대한 사례 분석에 의한 기업 차원의 미시경제적인 연구임.